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합격!

강남대성인문별관 1반 서영재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대성 인문별관 인문1반에서 공부했고 이번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게 된 서영재라고 합니다.

## < 합격 소감 >

합격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원하던 진로에 한발 나아간 것 같아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 < 재수 결심 이유 >

원래 희망이었던 진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게 맞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바로 재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 대성학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 >

현역 때도 대성학원이 아무래도 재수학원 중에서 최고라는 말을 들어왔었고 실제로도 저희 누나도 대성학원에서 공부하고 서울대 입학하게 된 사례가 있어서 대성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 대성학원 첫 인상, 분위기 >

대성학원에 처음 왔을 때 처음 반에 들어갔을 때 모두들 쉬는 시간이었는데도 책을 펴고 정숙을 지키며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공부하는 곳이 맞구나' 여기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 대성학원의 장점 >

제가 생각하는 대성학원의 제일 큰 장점은 아무래도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동기부여도 되고 그만큼 그런 학생들을 맞추기 위해서 좋은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좋은 결과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 대성학원의 관리시스템 >

대성학원 관리시스템 중에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점심을 먹고 나서 늘 매일 치러지는 미니테스트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월수금에는 국어를 보고 화목에는 수학을 보면서 미니테스트를 통해서 점심을 먹고 난 후에도 시험을 치르면서 실전 대비 감각을 길러주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 < 대성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달라진 점 >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서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고 특히 수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6~7시간을 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켰던 것이 현역 때와는 달리 제가 재수하면서 지켰던 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역 때는 하지 않았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암기과목을 노트에 적어서 암기한다든가 어려웠던 과목을 훑어본다거나 그런 자투리 시간의 활용이 재수 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 < 재수생활 중 방해 요인과 극복방법 >

재수할 때 방해 요인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하는 SNS가 가장 방해 요인이었는데 그것을 막고자 저는 좀 특이하게 모의고사를 핸드폰으로 캡처하거나 국어 지문을 캡처해서 갤러리에 저장해두고 핸드폰을 켜 때마다 SNS 앱으로 들어가지 않고 갤러리로 들어가서 글을 읽어본다거나 문제를 훑어보면서 그것을 극복했었습니다.

## < 시간 관리 노하우 >

시간 관리 노하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여겼던 것이 수면이었고요. 수면을 충분히 취하되 남은 시간에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고 특히 아침에 늘 깨어있기 위해서 적어도 6시에는 기상을 해서 전날에 공부했던 수학이라든가 국어라든가 문제집들을 보면서 머리를 깨워주는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 < 자신만의 학습 비법 >

우선 국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문학은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파트여서 우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감을 익히고 실전 대비 연습을 많이 하였고요. 또 대성에서 나오는 사설문제집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사설 문제집에서 실전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훈련을 많이 하였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되 EBS나 다른 문제집에서 나오는 많은 문학 작품을 읽어보려 하였고 그럼에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패턴들이나 그런 출제 유형들을 많이 익히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제가 고득점을 목표로 하였고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풀되 풀다가 잘 안 풀릴 때는 답지를 본다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풀어보려고 어쩔 때는 문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 문제당 3시간씩도 써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지를 보고 얻은 풀이방법은 나중에 실전에서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가 제 스스로 터득한 풀이방법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 < 취약과목 학습법 >

저의 취약과목은 국어였는데요. 평소 하던 대로 문제 풀고 채점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많이 늘지 않는 것 같아서 국어에도 뭔가 색다른 공부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9월 정도부터 국어에서도 오답노트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틀린 문제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제를 공책에 적고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경로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답지에서 혹은 선생님께서 제시하는 올바른 접근 방식을 하나하나 비교하며 써가며 ‘아,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였고 시험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 시기별 학습법 >

저는 9월 모의고사 전후로 시기가 나뉜다고 생각했는데, 9월 모의고사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9월 모의고사 후에는 그런 문제들을 바탕으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많이 읽어보고 또 파이널을 대비해서 여러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았던 것이 좋은 공부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 < 대성학원 학습 콘텐츠 중 가장 도움되었던 콘텐츠와 활용법 >

강대모의고사가 가장 저에게 기억에 남는 대성의 콘텐츠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가 그것이 저에게 실전 감각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그 문제를 출제하신 대성의 여러 선생님들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또 그것을 숙지하는 훈련을 제공해주어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였습니다.

## < 재수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 >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무래도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가장 힘들었는데요. 9월 모의고사에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고 많이 당황을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학원에 담임선생님께서 9월 모의고사를 못 봐어도 수능만 잘 보면 된다고 격려를 해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 < 재수 생활 중 가장 즐거웠던 순간 >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수면 시간을 꼭 지키자였구요. 현역 때 수면 시간을 잘 지키지 않아서 새벽까지 그냥 어영부영 시간을 때우다가 다음날 고생한 적이 많아서 반드시 수면 시간을 꼭 지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역 때와는 다르게 선생님께서 시키시는 것들 모두 다 지켜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 < 재수를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격려 >

제가 대성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신 권한상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고 내 행동에 달렸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수능장에서 나오는 순간까지 화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